

# “경전서 배운 가르침 생활속 실천”

## 신행현장

### 라이코스 불교동호회의 활동

부산시 서면, 변화가에 마련된 라이코스 불교동우회 '연꽃 핀 천불정사' (http://club.lycos.co.kr/bud10000) 사무실에 들어서면 도심의 번잡함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24일 수요일은 연꽃 핀 천불정사의 경전 윤독 모임이 있는 날. 천불정사 공부방에 모인 회원들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 <잡아함경> 공부에 푹 빠져 있었다. 천리안 불교동우회 부산경남방에서 활동하며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경전 강독 모임을 이어온 이들이 보다 진전된 공부를 해보자고 의기투합해 라이코스로 돌아와 공부방을 옮긴지도 어느덧 1년이 됐다. 20~40세까지 89명의 회원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꽃 핀 천불정사는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해 사내 공간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주소를 가진 모임이 되었다.

경전공부를 지도하고 있던 김준오(35·부산대 철학과 강사) 회원은 “경전 강독이야말로 불법의 핵심이 담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절경”이라며 “경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행활동이라는 실천을 통해 개인적 성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말했다. 3년 전부터 불교입문서와 경전을 강독하며 실천의 준거와 힘을 비축해 온 연꽃 핀 천불정사는

이미 <백문백답>, <바웃드하>, <인간부터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등의 입문서와 <숫타니파타> 강독을 마치고 현재는 한역본 <잡아함경>을 강독중이다. 지역적 한계로 만나지 못하는 회원들도 매주 월요일마다 온라인상의 '정빙'을 통해 경전 강독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정종삼(사업) 시승은 “불법이 무엇인가 하는 궁극적 의문을 하나 하나 해결하게 되니 실천행이 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토로했다. 뜻도 모르고 외면 예불은, 천수경 등 경전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 환희심이 일어나 저절로 실천에 옮기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연꽃 핀 천불정사는 그간의 경전 강독을 통해 체득한 가르침을 삼랑진 평화의 마을 봉사활동, 양로원 방문, 사찰문화행사, 천 배 정진 등으로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있다.

### 온-오프라인 경전공부 함께 모여 봉사활동도 정기적 사찰문화 답사 불교이해 길잡이 '독독'

라오게 되더라”고 토로했다. 뜻도 모르고 외면 예불은, 천수경 등 경전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 환희심이 일어나 저절로 실천에 옮기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연꽃 핀 천불정사는 그간의 경전 강독을 통해 체득한 가르침을 삼랑진 평화의 마을 봉사활동, 양로원 방문, 사찰문화행사, 천 배 정진 등으로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있다.



라이코스 불교동우회 연꽃핀천불정사 회원들이 24일 경전윤독모임을 하고 있다.

특히 사찰문화답사는 천불정사가 특별히 공을 들여 진행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답사에서 탈피, 불교예술과 불교의 역사 및 불교 문화의 숨결을 종합적으로 체험하도록 자료 준비가 철저하다. 또한 사이버상의 한계를 뛰어 넘어 전국의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화합의 공간이 되고 있다.

조용재(40)회원은 실천에서 단연 돋보인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평화의 마을 봉사에 참석해 풀뽑기, 발갈기, 추수하기 등에 땀을 흘리고 불교교양대학에 등록한 심리상담과 정에도 열성이다. “경전의 가르침의 의미하는 바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 뿐”이라는 조용재의 말은 달동네 야간학교 운영, 불교시민운동 등 연꽃 핀 천불정사 장기 활동 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

지난해 소년소녀가장인 현수의 생활비를 보조한 것이나 회원들이 돌아가며 현수의 학습지도를 한 것, 현재 또 다른 행을 위해 회비를 적립하는 것 모두가 사회의 어둡고 힘든 곳에 서 연꽃을 피우내기 위한 회원들의 맑은 정진인 것이다. ‘사상이장경’을 번역 입력해 놓은 연꽃 핀 천불정사는 인터넷상의 자료실 기능도 특목한다. 매년 청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경전을 재해석해서 입력하는 것을 공부의 화향으로 삼으며 꾸준한 자료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만났지만 지금은 가족 같은 따뜻함으로 서로의 공부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도반이 되었다”는 회원 모두는 “사이버와 현실세계 곳곳에 연꽃의 향기를 두루 전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발원하며 환한 웃음을 나누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 ‘내 자식만 합격’ 기원 참다운 기도 아닙니다

요즘처럼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전국적으로 성황을 이룬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작게는 일일기도에서부터 크게는 1천일 또는 1년 기도에도 이르러 기까지 기간도 기도의 명칭도 다른 입시기도가 사찰마다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상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입시기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의 어느 종교든 간에 모두 기도라 하여 신자가 자신의 바람을 절대자에게 호소함으로써 절대자의 은총을 베풀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 입시기도나 부적보다 구병시식 권했으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기도란 본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기도란 기도를 하는 사람 스스로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불·보살님께 무조건적인 기도를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의 기도는 기원보다도 발원에 해당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무조건 절대자에게 바란다는 측면보다도 그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다짐고 의의가 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방법 또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추구하기 보다는 일단 하나의 발원을 세운 다음에 염불이나 절, 진언, 독경, 사경 등을 통해 정신을 집중하는 수행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시기도 문화는 어떠한 반성적 시각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입시기도는 곧 고3수험생 위한 기도라 할 정도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둔 가정에서 하는 기도라 굳어 있습니다. 1·2학년 때에는 고베 풀린 망아



성원스님  
강화  
선원사 주지

지처럼 내버려 두다가 3학년이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때만 되면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불안감만 더해지고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아들만’이라는 ‘만만주의’ 기도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스님들도 진정으로 신도의 자녀가 대하여 합격하기를 바란다면 기도자 아닌 상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격을 위해 최선의 상담을 해주고 시험 이후에는 합격 불합격자 모두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부적 문제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부적의 판매가 급증합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시중에 부적이 바닥이 나 부적을 만드는 곳은 불야성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사찰도 이맘때가 되면 입시부적을 찾는 신도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전화로 문의하는 신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원한다면 구병시식을 권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는 기도입니다. 수험생이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가 내 자녀만이 아닌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면 더욱 좋습니다. 같은 여건에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래야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닫고 원망이나 미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 형성되고 존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임할 때 기도는 참다운 공덕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신행 캘린더

### 11월 1일(목)

■풍경소리 전시회=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는 11월 3일 까지 지하철 6호선 보문역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풍경’ 전시회를 개최한다. (02)736-5583

### 11월 3일(토)

■대둔사 초의문화제=전남 해남 대둔사는 오전 9시 30분 초의관과 일지암에서 ‘제10회 초의문화제’를 개최한다. 이어 4일에는 ‘불자 한마음 정진대회’도 마련한다. (061)534-5502  
■갑사 영규대사 추모제=계룡산 갑사는 11월 4일까지 경내에서 ‘민족의 번영과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창건 1581주년 개산대제 및 영규대사 순국 409주년 추모제’를 봉행한다. (041)857-8981  
■선우 명상수행 특강=우리는 선우는 오후 3시 30분 선우법당에서 ‘명상수행’을 주제로 송광사 강주 지운스님의 특강을 마련한다. (02)2278-8972

### 11월 4일(일)

■청소년축제한미당=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제5회 청소년 축제 한미당을 개최한다. 백일장, 사생대회, 댄스경연대회, 인터넷게임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051)405-5233

■태고학회 학술회의=태고학회는 오후 1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태고보우국사의 원용불교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갖는다. (02)904-0081

■관세음보살 봉안법회=전남 고흥정각사는 오전 10시 ‘사십이수 십이면 청동관세음보살 봉안법회’를 봉행한다. 통도사 방장 월하,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등이 증명법사로 동참한다. (061)835-2879

### 11월 5일(월)

■성철스님 추모법회 회향식=해인사 백련암은 오전 7시 백련암 고심원에서 성철 대종사 열반 추모 칠일칠야 참회법회를 회향한다. (055)932-7300

■구도회 <아침> 강좌=서울 구도회는 오후 7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권기중 박사를 초청, <아함경>을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02)3411-6167

### 11월 6일(화)

■태고보우 추모다례제=경기도 양평 사나사는 오전 11시 경내에서 태고보우국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하고, 국사 추대식을 전통의식으로 재현한다. 이어 2시부터 산사음악회도 마련한다. (031)772-5182

## 생활속의 불교

###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작은 일이 쌓여 큰 일이 된다.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들이 모여 큰 일이 된다. 위대한 일이란 단지 작은 일들이 모이고 쌓여진 것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극히 드물다.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가 번듯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을 선호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올 명성·평판·칭찬·영광 따위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건 야심(野心)이다. 이기적인 생각이다. ‘나’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고 자기 사랑이 배어 있는 탓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나’가 개입되면 이미 집착하고 있음이다. 무엇을 구하고 지키려는

생각이 전제된 것이다. 어찌 오는 인연 가는 인연에 반연하지 않는 도(道)의 마음이라 하겠는가. 물같이 살고 바람 같이 살라 함에 맞는다 하겠는가.

양 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다. “전국에 절 짓고 탑 세운 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달마의 대답은 ‘무’였다. ‘내가 했노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붙어 있는 한 아무런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했다 해도 공덕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진대 내게 큰 일을 할 여건이 되기를 바란다는 건 공덕을 말하기 전에 어리석음일 뿐이다.

불법에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또는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계행에서 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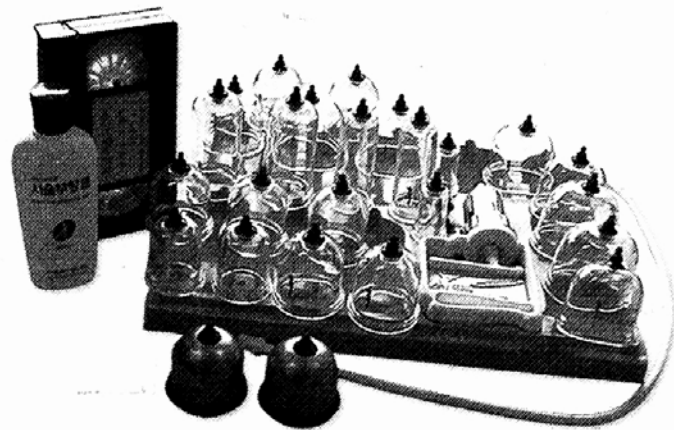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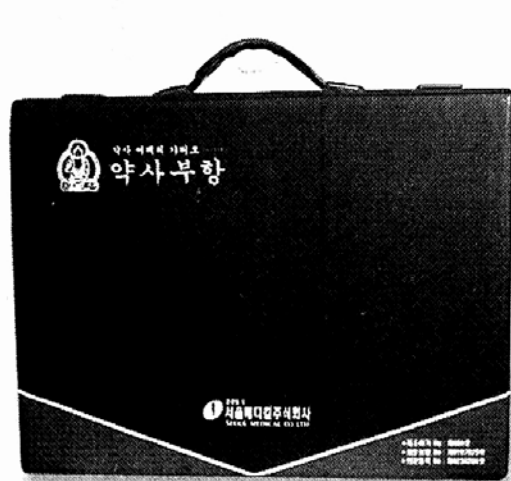
도 ‘한 사이 없이’ 하라고 가르친다. 내가 했노라, 내가 주었노라는 자기사랑이 완전히 표백된, 순수함 그 자체로 오직 행동하라고 한다.

일부러 천해지겠다, 버리겠다, 낮아지겠다 할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 주어질 일, 다가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기심을 앞세우지 않는 것, 보답이나 결과를 바라지 않는 마음 자체가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라. 일상적인 일에 충실하라. 보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위대한 일, 훌륭한 공덕이란 바로 그런 일들이 합쳐진 것이다.

龍眼

#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